

한국교회와 의료사업의 전개

趙 珧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1. 머리말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근대사회가 성립되고 전개되어 나간 시기와 거의 일치된다. 이 과정에 서 교회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제한적으로나마 기여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교회가 기여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는 의료사업 분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바는 교회 사업의 주된 방향이 의료사업이었다거나, 우리나라 의료사업의 발전을 교회가 주도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교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었다. 의료사업은 이 구원을 위한 한 방편이었다. 또한 교회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의료인들도 우리나라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우리나라 의료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가톨릭 의료사업사에 대한 체계적 정리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가톨릭 중앙의료원 50년사』를 비롯한 각종의 병원사 및 수도회에서의 의료 활동 분야에 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 천주교 의료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톨릭

의료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의료사의 편찬이 요청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천주교회에서 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교회 창설 직후부터였다. 그리고 그 사업은 오늘날까지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 전개한 의료사업에 시대구분을 편의상 박해기, 개항기, 식민지시대, 해방이후 현대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박해기의 의료사업

천주교 신앙이 한국에 전파된 것은 17세기 이후 중국으로부터 西學書들이 전파된 결과였다. 이 서학서 안에는 천주교 신앙을 전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의학을 비롯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8세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한문 서학서 가운데에는 천주교 계통의 서적과 함께 『職方外記』(알레니 著)와 같은 책을 통해서 서양의술이 전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崔漢綺(1803-1879)와 같은 인물은 이와 같은 서양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丁若鏞(1762-1836)과 같은 이는 종두법을 시행한 바 있고 19세기 후반기에는 우두법이 분명히 보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양 의학지식의 소개와 보급에 있어서 교회가 발휘했던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1995년 5월 26일 개최된 본협회 제53차 세미나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편 박해시대 신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박해시대 천주교 신도 의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는 崔必恭을 들 수 있다. 그는 典醫監의 瀋藥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崔必梯 등은 큰 거리에 약국을 열고 진료와 병행하여 자신의 진료처를 신도들과 연락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李中培는 일반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옥중에서까지 진료를 해야 했다. 金宗教와 같은 신도는 小兒醫로 이름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상의 인물들을 비롯하여 박해시대 신도들 가운데에는 전통의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자선적 차원 내지는 선교적 차원에서 의료사업을 전개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스트로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의 의료문제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의 진료와 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59년에는 시약소를 설치 운영했다.

박해시대 교회에서는 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지만, 인간구원의 연장 선상에서 그리고 선교의 차원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개항이후의 그것과 같이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톨릭 의료를 논할 때에는 효시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3. 개항기의 의료사업

개항기 우리나라에는 개신교회를 통해서 근대 서양의학에 관한 지식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그 선교 방침이 직접선교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간접선교를 병행하고 있던 개신교와는 달리,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했다. 그러나 1888년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가 서울에 진출한 이후 의료사업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갔다. 동 수녀회에서는 1897년 제물포에 그리고 1899년 서울에 무료진료소를 설치했다. 인천의 무료 진료소에서는 1910년 당시까지 설립 이후 해마다 대략 5,000여명의 환자들

을 진료하고 있었다. 서울의 무료진료소에도 적지않은 환자들이 찾아들었다. 당시 수녀회는 선교사업의 한 방편으로 무료진료소를 운영했던 것은 분명하다.

개항기 가톨릭의 의료활동은 다른 시기의 그것이나, 당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의료활동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했다. 개항기 가톨릭 의료활동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교회는 의료사업과 같은 간접 선교를 추진할 財政的 人的 여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간접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사업의 전개는 지장을 받게 되었고, 그 공백을 수도회의 의료활동이 보충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4. 식민지 시대의 의료활동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식민지 시대에 교회의 의료사업은 수도회 및 교구의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교구의 의료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교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천주교시료소」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병원에는 수녀들이 간호와 원무의 관리를 위해서 배속되었지만, 그 병원의 설립 주체는 교구였다. 이 병원은 ‘조선교구설정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기획되기 시작했다. 이 병원은 ‘성모병원’의 전신이 된다. 한편 대구교구에서도 1931년 성직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이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으며, 1934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교구에서는 영천과 전주에 무료진료소를 개설하여 잠시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 가톨릭 의료사업은 수도회가 중심이 되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가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시약소는 1920년대에 들어서서 대략 2만명 이상을 진료했고 1930년대 후반기 그 진료인원은 5만여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 수녀회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시약소는 1935년 보

육원 부설 병원으로 발전했다. 한편 동 수녀회에서는 1915년 대구에 진료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의 의료사업은 식민지시대에 들어와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한편 평안도 지역에 진출한 메리놀회에서 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8년에는 신의주 부근 비현에 시약소가 설치되었다. 1930년 신의주에 성모병원이 개원되었다. 이 병원에는 의사수녀에 의해 운영되었다. 메리놀회는 이 밖에도 강서와 안주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경우에도 함경도와 간도지방에서 의료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베네딕트수도회는 1928년 덕원에 병원을 개설했다. 그리고 베네딕트 수녀회의 경우에도 1927년 이후 원산에 시약소를 설치 운영해왔고, 1930년 이후 의사수녀의 입국에 따라 이를 병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연길교구에서도 1931년 이래 의료선교를 전개했는데 이곳의 의료기관에서는 올리베타노 베네딕트 수녀회의 수녀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식민지시대 교회의 의료활동은 그 질적 측면에서나 양적 측면에서 큰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시설의 확충이나 의료인의 양성 등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의 수준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의료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료활동을 위해 교회는 자신의 노력을 적지 않게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의료활동이 선교를 위해서 적지 않게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5. 현대사회의 의료활동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도 발전해 갔고, 특히 의료선교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을 괄목할만하다. 해방이후 한국천주교회의 의료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천주교 의료사업의 시행주체로 교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대교구 및 대구대교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교육기관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로 의료선교 만을 제시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의료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도회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셋째로 의료교육이 발전되었다. 가톨릭 이념에 입각한 의료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가톨릭 의료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의료교육기관에서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넷째로 의료윤리를 비롯한 의학에 대해서 신학적 성찰을 강화해 갈 수 있었다. 다섯째로 한센씨병 등 특수 의료분야에서의 봉사와 재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여섯째, 의료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함께, 의료선교의 효과가 적지 않게 드러나서 한국현대교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